

# [한라산 '환상숲길'을 가다(16)]코스-(상) 서귀포자연휴양림~남성대제1대피소~비자림로

"한라산 환상숲길은 자연·생태·역사 자원의 보고"

최태경 기자 tkchoi@hallailbo.co.kr

입력 : 2009. 08.06. 00:00:00



▲시오름 북사면부터 시작되는 울창한 편백숲길은 제주시험림까지 벨트를 이루며, 시험림 경내에 들어서 효돈천을 낀 남성대 등반코스 제1대피소로 마무리 된다. /사진=강경민기자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대가 4개월여에 걸쳐 85km에 달하는 숲길 탐사를 마무리했다. 하루에 짧게는 9km, 길게는 20km 이상의 숲길을 누빈 탐사대는 한라산 숲길이 간직한 제주의 자연·생태·역사·문화자원을 규명해 내는 가치있는 작업의 첫 여정을 마쳤다. 본지는 이번 탐사를 마무리하며 4회에 걸쳐 한라산 환상숲길의 ▷코스 ▷역사·문화 ▷자연·생태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주>

한라산 환상숲길은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남성대 제1대피소-5·16도로 수악계곡-이승악-사려니숲길-비자림로-관음사야영장--천아수원지-돌오름-서귀포자연휴양림 거린사슴까지 85.5km의 여정으로 한라산의 허리를 한바퀴 돌게된다.

▶제1코스:서귀포휴양림~남성대 제1대피소=제1코스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출발해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을 거쳐 돈내코 등반로, 남성대 제1대피소까지 이어지는

12.5km 길이의 코스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산림뿐 아니라 숙박시설을 겸비한 복합휴양관, 다양한 산책코스를 갖추고 있다. 이때문에 서귀포자연휴양림은 환상숲길이 개척되면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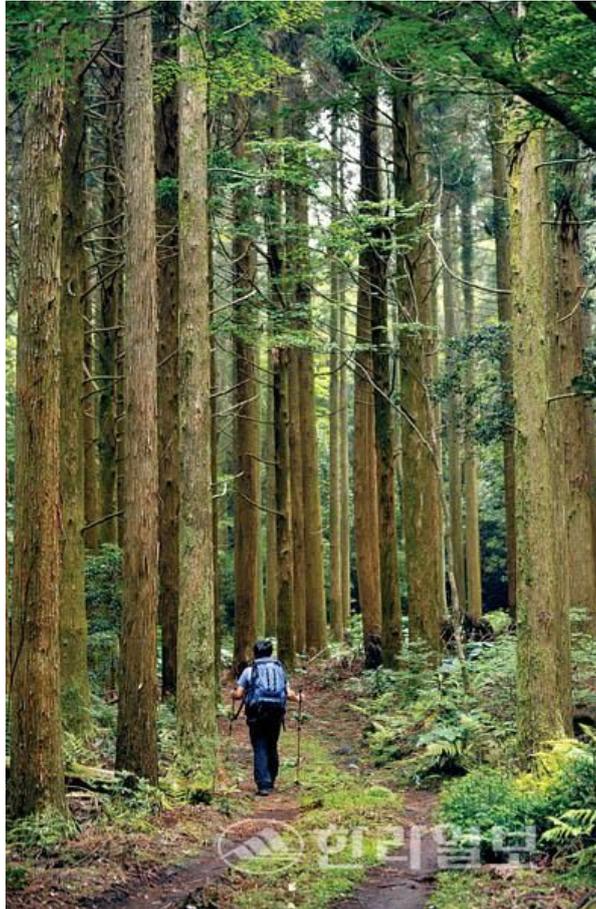


휴양림 산책로를 따라 1.5km를 이동하면 도순천을 만나게 되며, 도순천 징검다리 돌계단을 가로질러 하천을 건너면 오르막 법정사 전망대로 이어진다. 환상숲길을 잇는 목재 데크 산책로를 따라 만나는 법정사 전망대에서 서귀포 앞바다 범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귀포 자연휴양림과 법정사를 연결하는 323m 길이의 이 산책로는 지난 2007년 준공돼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산책로는 법정사와 의열사를 연결한다.

숲길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한참 떨어진 해발 700m 일대를 동서로 연결한다.

시오름 북사면부터 시작되는 울창한 편백숲길은 제주시험림까지 벨트를 이루며, 시험림 경내에 들어서 효돈천을 낀 남성대 등반코스 제1대피소로 마무리 된다.

▶ 제2코스:남성대 제1대피소~5·16도로 수악계곡=하치마키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제2코스는 남성대 제1대피소에서 시작해 돈내코 등반로와 선돌을 거쳐 수악계곡까지 이어지는 총 12km 길이의 숲길이다.



▲남성대 제1대피소를 향하는 시오름 주변 숲길  
/사진=강경민기자

이 길에는 임도와 하치마키도로를 추적할 수 있다. 작은 계곡을 잇기 위해 돌로 매운 뒤 평탄하게 만들어 사람과 기구가 움직일 만한 길도 열었다. 대부분 숲길 구간에서 길의 한쪽 부분들이 돌이 쌓여 있고 마감처리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유실되기 이전에는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음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환상숲길은 국내 최초 국제산림인증 시험림을 관통하기도 한다. 제주시시험림은 남원읍과 한남리 소재 한남시험림을 지칭한다. 이 두 곳의 시험림 면적이 2753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코스의 마지막인 수악계곡은 제주시내를 관통해 하구인 용연으로 이어지는 한천 상류에 탐라계곡이 있는 것처럼 신례천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신례천은 성널오름과 사라오름에서 발원해 보리악, 수악계곡을 거쳐 남원읍 하례리와 신례리 경계를 가로지르는데, 하천 전 구간이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제3코스:수악계곡~비자림로=이 구간은 총 21km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인 붉가시나무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승악 주변에 분포한 화산활동 흔적과 생물이 혼생하고 있는 곳이다.

제2코스의 마지막 지점인 5:16도로 수악계곡에서 이승악까지 5km 구간은 숲길의 흔적이 거의

없어 탐사가 쉽지 않다. 기존 도로변을 따라 이승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긴 하지만 국립공원을 비껴가는 원칙을 유지하고, 차도를 걷는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승악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새로 개척됐다. 하지만 도로를 일부 관통하고 있어 향후 숲길 완성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승악을 끼고 돌아가는 길목길목마다 발견되는 화산활동의 흔적은 마치 원시 자연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화산탄으로 보이는 직경 2m 이상 되는 거대 암석이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가 하면, 그 암석을 토양으로 삼아 솟아오른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제3코스에는 다양한 수종으로구성된 조림지와 편백나무를 선발해 개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한남시험림의 채종원도 만날 수 있다. 1983년 조성된 한남리의 채종원에는 4.5ha에 1800본의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분포한 삼나무, 편백 등의 우수 종을 모아 놓은 '유전자원보존원'은 미래 세대의 산림환경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난대산림연구소가 관리중이다.

이번 코스는 남원 한남리 사려니오름에서부터 5·16도로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비자림로 물참오름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의 임도에서 열린 사려니숲길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최적의 숲길 코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